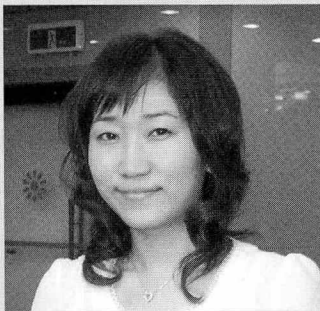


## “브랜드 네이밍 차별화 통해 친환경 이미지 표현” ‘농협 쌀 포장디자인 대학생 공모전’ 대상 수상



이 주 현

홍익대학원 시각디자인과

농협중앙회는 대학생들의 신선한 시각을 통한 농협 쌀의 새로운 포장 디자인 발굴을 위해 마련된 ‘제4회 농협 쌀 포장 디자인 대학생 공모전’ 대상에 홍익대 대학원 이주현 학생의 작품인 ‘소담한 되’를 선정했다.

“기대한 것보다 너무 큰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학생신분에 맞게 더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닦아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이주현 학생은 경기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현재 홍익대학원 시각디자인과에 재학중에 있다.

당시 취업과 진학의 기로에 섰던 이 학생은 학구열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원에 입학, 실기중심의 학부생활과는 다른 이론중심과 발표 수업으로 진행되는 대학원생활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지난 해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대전에서 학생부분 대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이 학생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쌀 개방 문제와 우리나라 쌀 브랜드화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상으로 수상하게 된 소담한 되는 ‘탐스럽고 풍족하며 먹음직스럽다’, ‘맛깔스럽다’ 라는 순 우리말의 ‘소담하다’와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곡식을 담은 단위의 ‘한 되’를 합친 브랜드 네임이다.

“‘소담하다’라는 정감있는 느낌의 순 우리말을 사용하



▲ 소담한 되

고 예로부터 사용했던 쌀의 단위를 나타내던 ‘한 되’의 표현법을 응용하여 국산의 이미지와 예전 시장터에서 할머니들이 쌀과 함께 퍼담아 주던 사람간의 믿음과 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담한 되는 디자인은 벼를 감싸고 있는 네모난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자연그대로를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이 학생은 “이 디자인은 ‘집안의 화초를 정성스레 가꾸듯 농부가 정성을 다해 기른 쌀’이라는 의미도 있고, ‘뒷박(곡식을 찧 때 쓰는 바가지)안에 한국의 쌀과 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의미도 된다”며 “더 크게 보면 농부의 정성과 노력이 일궈낸 자연이 베풀어주는 큰 선물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담한 되는 쌀의 색감을 다양하게 표현해 탐스럽고 맛깔스럽게 나타내 전체적인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차별화를 두었다.

“수입쌀이 개방됨으로써 국산 쌀은 품질 면에서 미국 쌀에 밀리고 중국 쌀에 가격 면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도불이라는 이미지에 호소하면서 패키지 디자인 쪽으로 눈길을 끌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옛말을 찾아보가며 브랜드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디자인하면서 뒷박을 마치 농부가 기른 화분같이 표현하느라 여러 번 수정을 거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제품을 디자인 하면서 그녀는 브랜드 네이밍을 차별화 시켰을뿐 아니라, 비주얼 부분도 지금껏 시도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포장디자인에 따라, 구매는 물론 브랜드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포장디자인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현재 포장 지기구조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 학생은 “무접착으로 접기만해서 포장을 하던 기존의 식상했던 제품을 포장 지기구조만을 리디자인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작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욱 학업에 충실히 하여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 실력을 다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이주현 학생.

미래를 내다보는 디자인과 마케팅을 동시에 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발전하겠다는 그녀의 노력과 활약을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